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學費輕減通牒

時宜에適合한處事

一

學務局에서는 現下非常時局의 消費節約對策에 呼應하야 全朝鮮各學校의 兒童、生徒、學生으로하여금 學用品使用을 極力節約시키는 一方就學父兄의學費負擔을 輕減케하고저 지난五日各道知事와 밋大學、專門學校長에게

一、制服 制帽 구두 가방其他携帶品一切에 對하여는 現下物資需給關係狀況에 鑑하야 訓育上支障이업는限 可及的 規格을緩和하고 又는現在 所有品으로써 恒久的으로 使用할수잇도록 方法을 講究하야 積極的으로 物資節約과 負擔緩和를 圖謀할것

一、文房具其他學用品에對하여는 鉛筆을 짤라서라도액겨서 쓰게하고 用紙節約을爲하야 使用量制限又는 代用品研究等 具體的方法을 세워實行시키는 同時에 廢物利用을 積極的으로 獎勵할것

一、敎科書以外의 課外讀本가튼것을 購入使用하는것은 適當한方法으로 制限하야 學父兄의學費負擔을 緩和함과同時에 過重한宿題賦課를 廢하야 體力向上을 圖謀할것

等三項目을 一齊히 通牒하야이를 勵行시키기로 되엿다고 傳한다。이處事야말로 晩時之嘆은잇스나 가장 時宜를得한것으로서 吾人은 贊成하려하는바이다。

二

現在 敎育制度와가티 畫一主義미례서는 더욱이나 多數의兒童生徒를 한곳에모아 訓育시키려면 制服 制帽 구두其他携帶品等의規格을 一致하게함이 訓育上으로나 外觀上으로나 必要하다함은 認定할바이나 그것도程度問題로서 그程度가 넘치면 도리어 여러가지 弊害가 따르게된다。現在 各學校에서는 自己學校制服 制帽、구두等의 規格을 一致하게 하기爲하야 指定商人을두고 반드시必要品에따라 그商店에서 사게하고 다른商店에서 산것이면 同一한것이라도 一切着用 又는 使用을 禁止하는極端의 例까지잇서서 一般學父兄들의 非難을 사는일이 非一非再하다。그것도 指定商人이라하야 다른商店보다 싸게 提供한다면 모르거니와 大槪가 그反對인 現狀이니 多少 春秋筆法에 흠되는嫌가잇스나 이것은 規格嚴守가 비저내인 一大弊端이라고 말안할수업다。가튼制服地이며 가튼模樣이면 그어느商店、洋服店에서 샀던지 關係업슬것이 아닌가。구태여 冗費를드리여 새로 指定商人에게서制服을 사지안호면 못쓸일이 무엇이잇가。이에 專任指定商人主義再檢討를 提議코저한다。

三

從來夏期宿題는 朝鮮에特有한入學試驗難의 餘波로 小中學校를勿論하고 너머나 그程度보다 過한것을 賦課하야 學童에는學父兄에게도 負擔으로 自習又는復習의目的을 저바리게하는同時에 어린學生들의 心身을 疲勞케하엿고 課外參考書購入에 잇서서는 著者와書籍名을 固執하야 辭典類는 조흔것을갓고도 그것보다 內容이貧弱한指定辭典을사지안흐면안되게되며 特히 女學校에서는 裁縫家事等 實習에 너머나高價인 材料를 要求하는일이만허서 學父兄의負擔過重을 조금도 考慮하여주지 안는다는것이世評이며 또는事實이다。그리고學校가 都市에만 集中되야 中等程度學校만되여도 莫大한學費를 要하게되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學校當局에게 學費負擔 [illegible] 時局에는 勿論이려니와 平時에 學父兄의 學費負擔輕減을 恒常念頭에두어주기를 全朝鮮學校當局者에게 要望하는바이다

陸海軍에게勅語下賜

【東京電話同盟】七日陸海軍에 내리옵신 勅語에 關하야 同日午後一時半陸海軍兩省으로부터 左와如히發表하엿다

陸海軍兩省發表

大元帥陛下께옵서는 今日午前十一時 陸海軍大臣을 宮中에 召하옵시고 陸海軍人에 對하옵시사 優渥한御勅語를 賜하옵시다

勅語

朕이 親愛하는陸海軍人에게 告함

不幸客歲隣邦과 釁端을 啓하자 朕의陸海將兵은 內로는 總力을 經理에 勵하며 外로는 攻戰防備에 勞하야 잘 威武를 中外에 宣揚하야써 朕의 信倚에 對하엿다

朕은 汝等의 忠誠勇武를 嘉하야 殉職에 犧牲하며 疫癘에 死하고 或은 殘廢者가 된것을 實로 惻怛한다

惟컨대時局의 前途는 아즉 遼遠하며 出師의 目的을 達하기爲하야 汝等의 勞力에 依할바 크다 汝等軍人은 朕의 意를 體하야 宇內의 大勢와 時局의 本質을 察하고 益益自彊奮勵하야써 朕의 股肱인 本分을 다하기를 期하라

惶恐·三陛下御默禱

【東京電話同盟】事變一周年을마지한 七日 天皇陛下께옵서는 御軍服을着御하옵시고 御平常과가티 表御座所에出御 午前十時 近衛首相에 臨謁 恐懼기 그지업슴을 卜하사 惶恐하옵게도 勅語를 賜하옵시고 同十時三十八分 參內한 米內海相、同四十二分 參內한 板垣陸相에게도 各各 軍事御說明 고마우신 말슴을 賜하옵신다음 午後一時 參內한 木戶厚生相、有馬農相과 末次內相으로부터 各水害狀況을 御聽取하옵시는等 萬機에御精勵하옵시는데 陛下께옵서는 事變勃發以來 日夜出征將兵의 勞苦를 偲하시사 이날 國民一齊히 默禱함에 際하옵서는 大奧에서 暫時 御默禱하옵시고 皇后陛下、大宮御所에 계옵신 皇太后陛下께옵서도 御默禱하옵시는等 承聞키도 惶恐하옵는바이다

東久邇宮妃殿下 東京에御歸還

【東京電話同盟】皇后陛下御差遣의 大任으로 去月十二日 東京御發 朝鮮에 行次하신 東久邇宮妃聰子內親王殿下께서는 朝鮮總督府管內의 各病院에 白衣勇士를 御慰問하시고 또朝鮮神宮을 御參拜하신後 各施設을 御巡視하시고 御歸京 御途中 豪雨로因하사 岡山에서 御一泊하신後 七日午前八時 御氣色 御麗하시게 二十五日만에 御歸京하시엇다

閑院總長宮殿下 優渥한말슴下賜

參謀本部職員에게

【東京電話同盟】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事變一周年의 七日 參謀本部職員에 對하사 左記와가튼 優渥하신말슴을 賜하옵신바 大本營陸軍部로부터 發表하엿다

大本營陸軍部發表

事變一周年을 마지함에 當하야 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參謀本部職員에 對하사 左記要旨의 말슴을 賜하섯다

말슴의要旨

今日事變一周年을 마지함에當하야 優渥하옵신 勅語를 拜하와 恐懼感激에 不堪한다 이에 戰歿將兵의 遺烈을 偲하야 그英靈에 感謝의 誠을 捧하는同時에 第一線將兵의 勞苦를기괴 생각하는바이다 回顧컨대 膺懲의師旅를 넘지 正히一年 그間 諸官은 戮力協心 夙夜 그業에 精勵하야써 所期의 目的達成에 貢獻하엿다 그리하야 只今戰局은 一層進展되고잇는이때에 統帥部의 責務는 益益重大를 加한다 마땅히 諸官은 勅語의 御趣旨를 奉體하야 一意그 職責을 發揮함에 遺憾이 업게하기를 바란다

閑院總長宮殿下 靖國神社에御參拜

【東京電話同盟】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事變一周年인 七日 午後一時 藤田御附武官을 거느리시고 九段의 靖國神社에 御參拜하사 護國의英靈의 冥福을祈하시엇다

陸海兩相勅語傳達

【東京電話同盟】陸海軍에서는 七日 優渥하옵신 勅語를 拜하고 板垣陸相은 宮中을退下後 午前十一時五十分 參謀本部 午後一時 陸軍省에 全員을 集合시켜 聖旨를 傳達하고 米內海相은 午後一時四十五分 軍令部及 海軍省에 全員을 集合시켜 同樣傳達하는同時에 在內在支의 全軍에對하야 傳達하엿다

陸海兩相奉答文

【東京電話同盟】戮力協心陸海一致事變解決에 渾身의努力을 하오바 優渥하옵신 勅語를 賜하옵심에 臣等感激에 不堪하와 삼가 聖旨를奉體하야써 聖慮를 奉安하옵기를期함

首相參內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七日 午後二時宮中에 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同日下賜하옵신 勅語의 精神을國民에게 徹底케하기爲하야 內閣告諭를發한 旨를 上奏하고 다시 朝野一致萬難을 排하고 聖慮에奉副할 旨를 言上하엿다

鹽原理事長式辭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發會式

今日玆에 支那事變一周年을卜하야 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 發會式을 擧行함에當하야 總督閣下、軍司令官閣下及 諸紳의賁臨을 辱한것은 本聯盟의 가장光榮으로 생각하는바이다

聖戰玆에 一星霜、忠勇한我軍의 奮鬪에依하야 多大한戰果를 거두엇다고하야도 蔣政權은 迷夢에서 깨지못하고 아직 第三國의 援助를依賴하야 長期抗戰을策하고 四億民衆을 塗炭의 苦에빠진것도不顧하므로即그들의 蠻軍을殲滅하고 速히東洋平和의 回復을圖함은 正義日本의 使命인바 이때문에國民은 皇軍의奮鬪와相俟하야 軍民一致로써 國家總動員의 態勢를完備치안흐면 안된다 그리고 國家總動員의實은 盡忠報國의念을 基礎로한國民의自發的協力에依하야 비로소 效果를 完全히나타낼수잇슬것이매 內鮮一億의 國民精神을 綜合統一하고이를 組織機能化하야 强力한 運動要素를삼는것은 刻下의急務가아닐수업다 惟컨대 半島에잇서서의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의機運은 事變勃發以來澎湃히勃興된 愛國心과相俟하야 自發的으로 澎湃되어온 것인바 今日그結實을보아 玆에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의 創立을 告하게된것은 [illegible] 衷心感激不堪하는바이다

半島의國民精神總動員의 主要目標는 擧國一致內鮮一體官民一如下에日本精神을 發揚하고 生活을 刷新하고 銃後後援을 强化하고 國民各自誠自肅으로 忍苦持久의 精神을 堅持하고 [illegible] 인제世界는 混沌하야 [illegible] 唯物文明의 [illegible] 必要가 더욱큰것을 銘記하여야 한다 [illegible] 新文明創成及指導에 [illegible] 確乎不動의 帝國의 大理想 [illegible] 內鮮一體를完成하고 [illegible] 國民精神總動員의 運動을가장 有效하게 發展시켜 有終의美果를 收하기바란다 [illegible] 本聯盟創立에 [illegible] 有形無形으로 多大한援助 [illegible] 官民諸賢에게 [illegible] 表하는同時에 今後의 [illegible] 援助力을 期待하는바이다 [illegible] 式辭로한다

昭和十三年七月七日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理事長 鹽原時三郞

支那事變一周年

本格戰은今後에 (下)

國民各自의覺悟必要

神速果敢한 皇軍活動에 依하야 事變一周年에 이미 上述한 바와가튼 空前의 大戰果를 收한것은 帝國本來의 使命達成을爲하야 實로 慶賀할바이다 蔣介石은 自己實力을 過信하엿을뿐아니라 日本의 實力을 너무나 輕視하고 抗日排戰的行動을 敢行하야 今回事變을 招來하엿스나 事變勃發 半年未滿에 北京、天津、太原、保定、上海等 支那의 重要都市及 心臟地帶를 全部放棄하엿슬뿐아니라 首都南京까지 占領되여 國民政府各機關은 或은 重慶으로 或은 漢口로 分散의 運命에 逢着하야 蔣政權은 一地方政權으로 頹落의 悲運에 빠지게된것이다 帝國의 實力을 過小評價하고 支那側의 實力을 過大評價한者는 支那自身뿐아니라 歐米第三國도 亦然하엿다。그러므로 今回事變에 잇서서의 皇軍의 實力發揮는 諸國의 對日認識을 是正하는意味에잇서서도 絶對로 必要한것이다

그러나 事變은 이것으로 끗난것도아니요 그前途가 樂觀되는것도아니다 皇軍의神速한行動과 戰果의 想像以上의 膨大에 國民은 이事變을 우습게보는傾向이업지안타 即 皇軍의實力을 絶對의것으로 確信하는 남어지 支那軍의 實力을 너무도輕視하는傾向이업지안타 勿論 忠勇的意氣로보나 戰略的技術로보나 支那軍은 皇軍에 比할것이못된다 그러나 그들은 數에잇서서 絶對로多數인 事實과 外國製의 最新式現代武器를 가젓다는事實을 이저서는안된다 따라서 旣述한바와가튼 膨大한 戰果를 短時日에 獲得함에잇서서는 寡兵으로 奮戰한 皇軍將兵의 苦痛은 實로莫大한것이엿다 首都南京이 陷落되고 難攻不落을 자랑하든 徐州도 放棄하고 最後의牙城인 漢口도 風前의 燈火의 運命에 直面한 이때에 支那의 抗日政權은 事實上地方政權으로 化하고마럿다。그러나 그들은 비록 奧地에 逃避하야 그다지 큰勢力은 업다하더라도 아직도 廣大한 地域에 亘하야 共産軍과 協力下에 依然抗日行動을 繼續할것이 明確하며 더욱히 敵의 背後에는 英佛蘇等諸國의 策動과 援助가잇스므로 이點을 輕視함은 禁物이다 露骨的으로 率直하게말하면 日本의 國敵은 支那라기보다도 支那以外에잇다 即 支那의抗日戰은 一種의 殲滅戰에不過한것이오 敵의本體는 該陣營의 背後에潛在하여잇다 따라서 支那事變은 이에一段落을 보것이아니라 近衛首相의말과가티 今日까지의 戰鬪行動은 行動에不過한것이오 支那事變의 本格戰은 인제부터 始作된것이다。帝國政府는 事變勃發 當初부터 大本營을 設置하고 陸海軍作戰上 遺憾이업도록 한同時에 企畫院을 新設하야 國家總動員計畫을 進行케하고 內閣參議制를 新設하야 內閣을補强하게된것은 支那의背後에잇는 모든抗日策動及勢力까지 消滅시키려는 覺悟와決意가잇는까닭이다。그리하야 過去一年間 帝國政府는 戰時體制를確立하고 暴支膺懲의 旣定方針達成을爲하야 邁進하여왓고 또今後 事變이 三年 四年을持續한다하더라도 어디까지던지 當初目的을 達成하고야말것은 確乎不拔의 [illegible] 國民各個人도 事變의重大性과 아울러 그使命이 또한重大하다는것을 생각하고 모든 方面에잇서서 銃後報國의 實을擧하여야할것이다 (一記者)

(寫眞은 大本營의 陸軍部와海軍部의看板)

"友邦에告하는書"로 蔣、列國에窮狀呼訴

【香港七日發同盟】事變發生一周年에際하야 蔣介石은『友邦에告하는書』를 發表하야 强한체하는反面에 强烈한 和平希望을 吐露하고잇는 要旨는 다음과갓다

「友邦에告하는書」

最近參政會의 招集、兵制實施、建設事業의 邁進은 抗戰開始一年으로서 現著한 效果를 거두고잇다 이는中國國民一致團結의 證左로서 民主化及 現代化國家의 途에向하야 前進하고잇슴과 同時에 抗戰實力도 또한 自然히 增大하고잇는것이다 我國民은 抗戰을 굿게決意하야 軍民一致로서 勇往邁進하고잇서 日本이 軍隊를 中國으로부터 撤退하고 主權을 回復하지안는때에는 抗戰의 旣定方針을 變更하지안는다 中國國民은 世界及國家의 大使命의 重大를 痛感하야 日本의 侵略에抵抗하고잇다 蔣介石은 敢히斷言한다 正義의 確立을 가지고서 그莊嚴의 回復을 盟約하지안흐면 中國의 使命은 드디여 成就하지안는다 親愛하는 各友邦이여 日本의侵略이 一日이라도 일직이 停止하지안흐면 極東及世界의 平和는 一日도 維持하기不能하고 人類幸福、文化의保衛는 實로 共同의 職責이것을 覺하라 我等은이職責達成을爲하야 中國四億五千의同胞를救하야 抗戰의前途에向하야邁進하고잇다

安陵集과東明占領

【北京七日發同盟】開封東北方黃河右岸을 破竹之勢로 殘敵을掃蕩中인 我○○部隊는 五日午前 安陵集、(東明東南方約十키로)午後 東明을占領하엿다

曲沃附近에 敵續續增援

【石家莊七日發同盟】濟源(沁縣西方)方面으로부터 西進한 高樹部隊는 一齊히 曲沃附近에肉薄中으로 이미該地附近의 敵을 壓迫하고 曲沃南方의 敵東側背後에 돌고잇는데 敵은孟縣(洛陽東南方十里)으로부터 黃河를 건너 續續增援中이나 이에對하야 我○○部隊는 斷乎히 그攻勢를 取하고잇다

曲沃南方서奮戰

鈴木眞野等諸部隊

【石家莊七日發同盟】我鈴木部隊는 六日正午頃 曲沃南方에 眞野部隊는 東南方에 各各進出하야 敵을 壓迫中이다 또淸水部隊는 大交鎭附近에서 敵에 큰打擊을 주고 南方으로 이것을 潰走시켯다 一方小林部隊는 曲沃西北方附近에進出하야 包圍攻擊中이다 上과如히 曲沃南方의 敵을包圍하려는 我態勢에 山西奪還을 豪語하든敵은 漸次壓倒的攻勢를 取하는 我軍의態勢에 周章狼狽하야 動搖의 氣色이濃厚하다

七日早曉를期해

曲沃前面敵을砲擊

【曲沃七日發同盟】事變勃發以來 一周年을마지한 我○○部隊는 七日早曉를期하야 曲沃前面高地에 堅固한陣地를 築造하고 挑戰하여오든 敵에猛烈한 砲擊을加하는一方 ○○、○○、○○의各部隊는 壯烈한 突擊戰으로 進出하엿는데 敵은 我包圍에 怯을 먹고 左家陣盟鸞村에서 暫時抵抗하다가 總退却을開始하엿다

洛陽空爆

【北京七日發同盟】中園飛行部隊는 六日洛陽을空襲하야 洛陽城壁과 밋停車場을爆擊하야 全線을 命中시키여 多大한損害를주엇다

人事·集會

◆川岸文三郞中將(東部防衛司令官) 九日午前十時二十分京城驛着豫定

◆島田林太郞氏(株式會社中井商店專務取締役) 入京人事次來社

夕刊後市況 七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三·四一	三·四四
釜山	三·八五	三·〇七	三·八三
群山	三·三	三·三	三·六
木浦	—	—	三·三
下關	—	—	三·九一
名古	—	—	三·六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大阪人絹	八八二〇	八七三〇
福井人絹	八九〇〇	—
橫濱生糸	七六三〇〇	七六〇〇

鋼製品制限令公布

來月中旬엔製造禁止乎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 鋼鐵의軍需的 重要性에鑑하야 이미 昨年十月鐵鋼工作物築造許可規則을公布하고 建築用鋼材의使用을 制限하엿는데 最近에이르러 다시 高度의使用節約을 必要케되엿스므로 一般民需用 鋼製品에關하야 製造制限을 實施키로되여 八日附로써『鋼製品製造制限에關한件』(輸出入品臨時措置法에 基한省令)을 公布하는同時에 同省令에基하야 製造制限을 實施코저 品目을告示하고 來八月十五日부터 原則으로서 그製造를禁止키로되엿다

鋼製品制限省令內容

【東京電話同盟】鋼製品의 製造制限에 關한商工省令은如左한다

◆鋼製品의 製造制限에關한件 ◆商工大臣의 指定한 物品또는 그部分品은 鋼材(鍍鋼을包含함)로서 이것을製造하지못함 但特別事情에따라 地方長官의 許可를바든때에는此限에不在함

前項但書의 許可를바드려고하는者는 當該物品 또는 部分品에對한 工業組合 또는 工業組合聯合會의 組合員 또는 所屬의 工業者이때에는 當該工業組合聯合會를經由하야 許可申請書를提出할것

毛製品混用規則

十日부터改正實施

【東京電話同盟】羊毛輸入制限에伴하야 軍需用羊毛供給을 確保하고 民需用을 抑制코저 商工省에서는 今番毛製品 스·파混用規則을 改正하야 七月十日부터實施키로 決定、七日地方長官에 對하야依命通牒을 發하는同時에 當日午後二時丸之內 中央亭에 羊毛工業會、毛絲輸出組合、毛織物輸出組合、羊毛輸入統制組合、毛共聯의 各代表者를 招集하야 諒解를 求하엿다 改正의 骨子는如左하다

一、스·파混用範圍를 擴大할것 即 從來毛織物에는 全部、毛絲에는 手編毛絲만의 스·파混用을强制하엿는데 今後는梳毛絲紡毛絲를비롯하야 毛絲全部의 스·파混用强制한것

一、스·파混用率을 引上할것 即 從來毛織物은 三割乃至 二割의 스·파混用率 이든것을 今後는 거의 스·파混用率을 除하야 五割以上스·파混用을命한것

一、梳毛織의 番手制限을實行하야 規格統一을 꾀한것

一、中國도 國內와 同樣으로取扱하야 이에對한 輸出에關하여는 輸出向 毛絲의 優先待遇를 수지안케된것

毛製品스·파混用規則改正內容

【東京電話同盟】商工省令毛製品 스·파混用規則을다음과가티改正하엿다

第一條 梳毛絲를 製造할때에는 輸出品(關東州、滿洲國 또는中華民國에 輸出할것을 除한以下同一함)及輸出品의 原料또는材料에 쓸것을 除한 以外에 그 [illegible] 番手九番 一六番、二〇番、三〇番、三二番、四八番、五二番、六〇番、六四番 또는七二番으로 하야 스·파 그他의 毛 또는 綿이아닌 纖維를左記混用比率에따라 五割、六割、七割、八割 또는九割混用하기로한다 但特別의事情에 따라 地方長官의 許可를 바든때에는 此限에不在함

前項의混用毛絲에는 混用한纖維의 種類及 그混用比率을 表示할것

第二條 紡毛絲를製造한때에는 輸出品及 輸出品의 原料또는材料에 쓸것을 除한外스·파그他의 毛또는 綿이아닌纖維를從量割合에서 二割以上混紡하기를 要한다 但特別事情에따라 地方長官의 許可를바든때에는 此限에不在함

第三條 毛絲織物(毛布、膝掛、金及 목도리를 除한以下同一함)又는 毛메리야쓰를 製造할때에는 輸出品及 輸出品의 原料또는 材料에쓸것外 스·파其他의 毛 또는 綿이아닌 纖維를左記混用比率에따라 混用하여야한다 但特別한 事情에따라 地方長官의 許可를바든때에는 此限에不在함

毛絲織物五割以上 毛布、膝掛、金及목도리)三割以上 其他二割以上 毛메리야쓰五割以上

第四條 輸出品 또는 輸出品의 原料 또는 材料에쓸 目的으로 製造한 毛絲、毛織物 또는 毛메리야쓰를 讓渡하는것은本邦(關東州、滿洲國、또는 中華民國에서 消費에 充當하기爲하야 이것을 販賣하지못한다 但特別한事情에따라 地方長官의 許可를바든때에는 此限에不在함

附則

本則은 昭和十三年七月十日부터 이것을 施行함

明年豫算編成方針

八日閣議에附議決定

【東京電話同盟】聖戰一周年을마지하야 長期戰에備할 決意를固히한 政府는 戰時經濟體制의 確立을目標로하야 明年度豫算編成에着手하기로되야 八日閣議에 昭和十四年度 豫算編成方針을 附議 承認을 求하기로決定되엿는데 同豫算編成方針의大綱은 다음과갓다

◆昭和十四年度豫算編成方針에 對하여는 事變의 長期戰에 드러간 今日의 時局에鑑하야 事業의緩急을 考慮하야 그能率의發揮에 努力하고 物資의 節約을勵行하야 事變終局의 目的을 達成하기爲하야 此際左記에 依하야 各省의 協力을 求한다

一、各省經費는 時局에 鑑하야 참으로 緊急한 經費에만 限할것

一、新規經費에 對하여는 各省다가티 될수잇는限 旣定經費의節約에따라 그財源을 捻出하기에 努力할것

一、重要物資及 海外拂經費에對하여는 此際特히 節約에 努力할것

一、各省은 新規經費뿐만 아니라 旣定經費에 對해서도 그節約에對한 研究를 講究할것

一、營繕費、工木費와가튼 特히 重要物資의 需要를增加할性質의것은 참을수잇는限이것을節約할것

一、特別會計에잇서서도 一般會計에準하야 節約에努力함과同時에 財政의餘裕는 될수잇는限 一般會計及 臨時軍事費의 財源에 繰入할수잇게할것

一、槪算要求에따른 物資需要에 對하여는 될수잇는限 正確한 豫定書를만드러 物資需要調書를提出할것

一、各省槪算은 八月十日限 各特別會計는 八月二十日限 提出할것

그리고 右豫算編成方針決定에 大藏省에서는 各省會計課長을 主計局에 召集하야 이에對한 主計局의 說明과 協力을 求할方針인데 特히 物資需要調書에 對하야는 先般의 閣議決定의 物資需要計畫에따라 重要物資約二十種을列擧하야 各省의 調査報告를 徵하기로되엿다

머리의榮養을조케하고

血을새로늘리고

肉을튼튼하게緊張시켜

옛날에는養命酒를行商에너서鄕士의病弱者한테주엇습니다

滋養强壯

養命酒

古來로靈能으로高名

深山峽谷 特産名物

日本알프스赤石嶽、駒岳의봉오리놉고、天龍川의흐르는물激하는名勝之地、信州伊那谷、天然自然의風土氣候中에서만 醞釀되는 深山仙酒다、

三百年來 家傳秘法

高山貴重藥草合釀의 秘製法을慶長의옛날、救難바든 老旅人으로부터 報恩으로 傳授된것이그始初로서、爾來星霜三百年來家傳秘法으로 釀造되어온名物이다、

古今가치 貴重效能

옛날부터여러사람이 實驗해서 好評이잇는 靈能은、現代醫學博士 七十餘先生에依해서 實驗推奬되고、醫藥과併用하면、一層그效果가顯著하다고한다、

芳香美味 한、貴重한 養命酒를朝夕으로 一杯式愛飮하면 느려진 機械에다 기름을넛는 것과가티 勢力이붓고、朦朧한머리도 明快하게되고、느른한身體도緊張되어서 貧血、虛弱한분、病身衰弱한분도根本부터 튼튼해지니 世上에드믄이 靈能은 理致를超越해서 古來로有名해가는 養命酒로世上의 評判이무엇보다도事實을이야기합니다

滋養强壯劑로서

◉呼吸器와 胸이弱해서 걱정인분

◉胃腸이 나빠서 身體가여위는분

◉根氣가업서서 하품나고졸리는분

◉身體가 느른하고 숨이 차는분

◉神經衰弱으로 安眠이 안되는분

◉血液의循環이나빠서 活氣적은분

◉오랜 病으로 回復力이 적은분

◉病後와 手術後의 回復이느진분

◉産前産後에 시달리는婦人 等等

信川伊那谷의特産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一圓五十錢 大瓶參圓 德用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습니다 品切일時는便宜上 東京出張所로注文하십시요 送料本舖負擔 代金引換은 送料實費를拜受합니다

釀造發賣元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養命酒本舖天龍館

出張所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 澁谷 二八四七番 振替東京 八八五五番

小瓶進呈

意外 라할만치 好感을주는 深山仙酒로서 芳香美味하야 아주 먹기조타는것을 實物로紹介하기爲해서 養命酒試飮用小瓶을 無代로 送呈中이오니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即時葉書로申込하시요

注意 僞酒品이잇슴으로 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란文字에特히注意하시고사시요

出版界에 影響甚大
空前의 住宅難必至
學園外에 各種文化事業頓挫
惡德家主跋扈를 警戒

物資動員計畫과 두가지難中難題
紙饑饉 木材難

물자 동원계획에따라 중앙정부는 상공성으로 하야금 중요물자의 사용제한에관한 법령이 작구 발포되어 이미 면사제품을 비롯해서 가죽、조히、목재、강철등의 제한이 실시되게되엇거니와 조선은 특수사정이 잇다고해서 이것 저것을 모두 따라갈수업다고 버티기만할 형편도 되지 못하야 중앙정부가 이미 결정한 설혼두가지물품의 사용제한을 그대로 총독부령으로써 발포하기로 내정되엇다 어리하야 방금 식산국에서 준비수속을 진행하고 엿는중인데 조선서도 물론 내지와가치 우선 조히、목재、강철의 제한을 보게될것이다 이로인하야 조선에서바들 타격은 실노 한두가지가아닌데 그중에도 조히기근이 가저올 문화사업의 영향과 목재 기근이 가저올 주택난、여기 겻드려 생각될 집 빌리는문제등은 가볍게 보아넘길수업는 터이다

조히기근에 엿서서 총독부당국은 벌써 학원의소비절약을강조하야 그중에도 특히학생、생도들의 조히절약과 폐휴、대용품이용에 대한 학교당국과학부형측의 적극적성원을 부르지지고잇다. 그러나 소비절약만으로써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때가올지 람로가、도회유지、모조지등의기근이 거저되는바이며 이저보다

또 출판계에 미칠영향은 한칭 더 클것으로 짐작된다. 즉 웬만한 잡지등속의 출판물은 거이 자연소멸의 운명을 면하기어려울것하며 신문업에도 타격이클것이어서 이제 바야흐로 어려나려는 조선의문화사업은 다시주저안(躊躇)이라할것이다.

그리고 목재사용제한은 저절로 가옥신축 또는 증축이극도로 제한될것이어서 도시의발전따 인구집중의 급격한 물결과 함께 그전부터조선사회문제의커다란 암(癌)이라할 차가분규는 더욱더심각할것이라고 근심되는바이다. 더구나 조선에는 아직 차지차가에대한 분규방지나또는 그로조정에 대한 아무런 법령이업서서 만일의경우 악덕집주인이아무런 제재도 밧지안코 맘대로 차가인을 못살게구는 형편인데 이제주택난이 더심해지는날엔이 틀의 악덕성이 더발동할것이벌써부터 내다보히므로 물론장기채제아래에서 견인지구의 각오를 가지고 인고단련을한다할지라도 당국으로서는 그대책에잇서서 철저한 취체와 차지차가법을 하루빨리 실시하도록 갈망되는바이라한다.

朝鮮總聯盟에 呼應
地方聯盟續續結成
昨日組織된것만廿八個

전조선 어천삼백만민중을총망라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어디어디까지 철저하게 하려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세포조직계 할 각지방 도연맹은 서울에서 결성된 조선연맹의 산하단체로서 실로 전에없는 정신운동을 이룩하고 잇는바 지난칠일 결성된 지방연맹은 다음과 같다.

京城 開城 仁川 水原 平澤 安城 驪州 (中略) 利川 海州 沙里院 平壤 新義州 鎭南浦 元山 咸興 大邱 釜山 金泉 群山 全州 光州 木浦 晉州 馬山 淸州 春川

危險한冷麵!
兩名이奪命
永登浦町의慘事

【永登浦支局電話】 부내영등포정 영등포정이백오십륙번지 어오룡(魚五龍)(?)은 지난육일오후여 철공소(鐵工所)직공으로잇든 덜시에 강원도원주(原州)에서올라온 그의매부 구상농(具相同)과 함께 영등포에잇는 자기집에도라와 그날밤 잠려고할때 갑자기 맹렬한 복통이 이르키여 영등포 소전병원(小田病院)의사를 불러다가 응급수당을 하엿스나 어오룡은 칠일오전세시반에 절명하고 구상농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엿스나 역시 칠일오후영시 사십분에 마저 절명하고말엇다 의사의 진단에의하면 냉면속에 든 도야지고기가 썩어서 이에 중독된것이라는데 소관영등포서에서는 방금 그냉면집 주인을 불러다가엄중한취조를하는중이다

白雲속에點點奇峯
雨中金剛의雅韻
適時의邂逅! 千年버섯石耳따는사나이

山班 第一站 毘盧峯 ❶ 文 … 寫眞 …

경량특급(輕涼特急)산반(山班)의 첫『패툰』을 마틋게자는 서슬지안코 명사금강의 제일봉인 비로봉(毘盧峯)을 향하야닿엇다 여름철 금강산(金剛山)이 비가만라더니 이날도 어김업시 날세가 흐렷다 온정리(溫井里)를떠나기도전에 벌써 제법굵은빗방울이 뚝뚝듯기시작한다 여관주인이 자꾸만 떠나기를만류한다 그러나 금강이원체조하 좋하주룽을따라 각각그운치가다른대로 조라거를 버치나고 흐리고 안개끼고 비가오는 그모양그대로가 제각각도한운치가잇슬것이라 비가오면 안개가지는편 안개속의금강을찾겟다는생각으로 질흙구지떠나서 이욱고 극락고개(極樂嶺)를 올라서니 때는 바로 칠월일일오후세시반이엇다 비는 오지안흣나 날은 여전히 흐리고잇다 복으로 땅요룡(?)밀봉(文殊峯)을 처다보며 남으로 문개을 내려서 선개사(禪溪寺)의 산문으로 들어섯다 사방에 옹굿옹굿한 가지가지 봉오리가진한 자주에 약간 검푸른비출먹음고 소사잇는데 희안개가 자욱이 이산기슭을 파무드면 솜가튼 구름이 뭉게뭉게 저산허리를 감돌고 욱어진 풀틈 수면서 이는바람소래、욱울 흘리는듯한 맑은시내물소래、이름조차모를 가진새소래는 벼룽언시 조화옹의 채판(彩板)으로비저낸 한폭의 명화요 선인(仙人)들이 올리는 한편의 교향악(交響樂)임에 틀림업섯다

○……○

벌써 금강경의 첫대목에서이러토록 정신이황홀해젓는지라아프로 더파고드러가는것이 정녕코 부질업슨(?)일가리생각도 되엿스나 이왕에 내친거름이라 내친걸음따라 올라가다 선담(船潭)찻찻에안저 세존봉(世尊峯)을 처다보며 즐겻더니 오선대(五仙臺)를 넘어서는 갑자기도 난대업는 구름안개가 자욱하게내려더퍼 내어디단발灰조차 안보일만큼연마진(?)이버러진다 어디서일진청풍이 안개를물코부러왓는지 머리우를 욱어덧든 나뭇입새에서 물방울이후가 비오듯하고내린다 한거름 한거름씩오고 어리기꺼인안개별들을 떠나 어룡자봉오리가 오락소사나면 뒤토버더진 구름속으로는 꿀자기가 선듯잔하자고 구비치는 안개와너울거리는 구름장의 얼고사리집 어데업서 천변만화로 부리는조화가운(雨中)금강의 재다른운치를한것 보여주엇다 꿈꿰가튼 변화에취한듯 흘린듯 구룹한꽃욱안고 얼이빠저서노라니 안개를물코 흘리나니 물소리고 새소리만 낭자할뿐이엇다

어것도 금강운순가변! 천지는 쥿업는적막으로 꿈결가튼 무아경(無我境)에서 무거운명상(瞑想)에 잠겨잇노라니 바람도가볍수업는 안개속으로부터 구술픈두견새소래가 무념(無念)에 취한 내등뒤에 꽃가벼거온듯깨워주엇다.

선잠을깬듯시 눈을 부비면서 가는단 노래소리는 구룽속라고 정점기가까워만온다 어욱고 길도업는 일원대(一圓臺)중네산비탈에서 바스락바스락 무슨소리가나며 안개속에서 무엇이몸지기는듯하더니 바로 내코아래(金剛)에 어세게생긴 장정한명이 쏙솟나온다

키는크고 눈은에꾸요 어마빼땅대빼러빼 모두가 불룩뒤여나온후에귀미례서부러 구레나룻이 너울너울하고 오른편손에는 이만어 독안롱(獨眼龍)가치도 어상한 망채를던지고잇다 머리에 수건을마구 붉은봉이고 버작병이에다가 다리에는 갑발을쳣다 나무한단 가량의 부피밧게 안되여보히는 짐을 목거서 두어깨에 걸머젓는데 얼른보기에도 단순한 산꿀의 나무꾼으로는 보히지안코 그집머진 질도 나문집으로 해서는 너무나저다 사람을보고도 어러타는 기색이업시 그무표정

…공산에 적막한데 슬피우는 저두견아 축국총이 어제오늘아니어든 지금에 피나게울어……

○……○

다시거름을 옮겨에는 루지젹소래다듬따라 어젓은 혀앵을한이지 아득한 안개속으로부터 슬픈한 노래가락한곡조가 들려왓다 비내리는 이공산에 사람키 을 도통에 들어기도하야 비끄럽운 한가시 들리기도하다 비사되는 그 들어기도 ... 노래나 노래사연은 ... 두견소리못단 다음여떠 공연히 이러사설도만흣다.

한 얼불이 ... 우안에서 ... 나는 것이 다른지 … 눅기(?)와는 … 신앙(信仰)에 … 통제가 어천지 … 업는 … 어사나이에 … 사나이가 아니가하는 … 개가다 버려놓스치고간다 … 산봉우리는 … 산봉의어디인 … (이하 판독불명)

리어다 금강산을 생령선으로삼고 … 뒤고 천박한지라 기자는 오정기록을 소개하기는 너무나 축네들은드러서 산파어울리 생활이어다울때부터 뚝편으로 드른말에 금강산을 생령선으로삼고 충아돌면을 다름처럼 라고다니면서 천년버섯이라고도하는석이(石耳)를 따서생업을 삼아금강산중에서나서 금강산『석인』로 배를불리다 금강산에백골을 뭇고란다는 참말로금강산의 엄원자를찾고저 만나는사람마다 무럿지마는 모두들 예전에는 그런사람이 한둘이 잇섯다고 말만을엇스나 연전에 구룡연어느바우에서떠러저 죽엇다는등 누구인지 알비이 업다는 대답뿐이라 실망을 마지안헛더니 이상한 풍모를한 사나이가 혹시나오직 하나살아잇는지도 모른다는그『석인』따는사람이 아닌가하는생각이 떠오른것이다

○……○

어사람이 그사람이 아니라면 어쩔고 허허실실로 말이나 걸처보자고 우선 이 사나이에게 그해머지정이 묵어이나고 뭇어보앗다

「이거오니까、 서마람이오니까 스님한이 부중이나서 케다닐따라하오니까」

부근주면이나 당는다시 힝각하엿는지 대염이는이거가 저내하고 조심스러이다헛것다 「…하오니까」를 부치는때 어는땜도시 반어(反語)만이아니라 「합니다」로 통하는그의 독특한 씨임을 본문하는데 알수가잇섯다

혹시 어근방에 천년버섯따는사람이 업느냐고 묵어봇즉 「제가 따오니까」 용지 바로드러마즈구나! 나는 스스로 가만히 나의행운을 축수하엿다 금강산에 산지가 몃해나되는가고 재처물어본즉 「삼십년이 넘엇사오니까」 그의견내하고 조심스러운 말가운데 오히려 영봉금강의 정기가 배여나오는듯 기뻐에보치섬하게도 시방구룡연(九龍淵)으로 가는길이니 함께가서 「석인」를 따자고 청하엿더니 그는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지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좌우로흔들며

「그러케는 따지못하오니까、산에 치성을 드리지안코는 못나서오니까」

그러나 이것이 영산(靈山)의허락이 업시는 산에 손을못대는 산에대한 그의 순박한 「타부」(禁忌)이엿다!

(사진은배운간에소스닌금강군봉)

音樂家團體도
單一體로合流
朝鮮音樂家協會를解體와同時
內鮮音樂家協會의組織을準備

부내에잇는 조선음악가 협회(朝鮮音樂家協會)에서는 유일오후여덟시부터 부내백합원(百合園)에서 이종태(李鍾泰)、현제명(玄濟明)、이승학(李升學)등간사들이 모혀서 비상시국의 내선일체를 구현하기위하야 조선음악가협회를 해체하고 내선융화하기로 결정하엿다고한다 어려운 악가를 총망라한 단체를 결성하야오는칠월에 조선『호텔』

在留中國人
慰問袋獻納

저간번전조선각지에산재한 중화상회(中華商會)를연합한 여선화교연합회(旅鮮華僑聯合會)가발기하고 경성중국총령사관동하에 조선각지중국인단체가 황군위문주머니를 모집중이엿섯는데 각지에서 속속응모 경성만에라도 칠월오일 이것을마감한것이 유백오십구원에 개수로 유백오십구개에 달하엿슴으로 칠월칠일각단체대표자가 경성헌병대를차저와서헌납수속을하는동시에간곡한위문장을보내주엇다

范總領事談 범한생(范漢生)총령사는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영원한 동양평화를위하야 노력하는황군에게감사의 뜻을표하려는것입니다 귀국의원조를입어신흥정권이발전하고멀지안허서중국민중도황군의진의를이해할줄생각합니다운운(사진은범씨)

스포-츠

日本籠協支部와 朝鮮籠協合流

既報…大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에서는 朝鮮스포-츠界에 率先하야 一大强化策을 樹立코저 這間 朝鮮籠球協會와 合流氣運이 떠돌고잇섯는데 七日에는 同支部로부터 다음과가튼聲明을 發表한바잇섯다

◇聲明

時局에鑑하야 東京올림픽大會에對한 强化策의 第一階段으로써 從來本協會支部와 한가지로 斯道發展과向上에 多大한功績을남긴 朝鮮籠球協會와 서로히 合流되여 本協會支部의內容을 强化하는同時에 斯道發展을위하야 새로운出發을 하기로되엿다

今日의運動

▲野球＝大每主催 第十二回都市對抗野球大會朝鮮豫選第一日…全大邱對平壤實業 午後四時半 京城球場(觀覽料＝넷트後面 五十錢 一般二十錢)

曆

▲七月八日(金曜)陰六月十一日▲小暑▲干支辛丑▲日出午前五時十九分▲日南中十二時三十八分 ▲日入午後七時五十七分▲晝間 午後二時三十八分▲月出 午後四時二十一分▲月入 午前一時四十六分▲滿潮(仁川)午前一時二十五分과 午後一時四〇分

총·딱

○ 세월은 바뀌어 개에도 호적이 필요한 시대가된것을호 적어서 두엇다가토 벌을당한것이 최근 동대문서에 사십여마리

○ 개는 아무리개라고 하지만모처럼사람믿고 살어온 그인연이 그러치안커던 토벌에걸려 잡혀가도록두니

○ 개더러 주인에대한 하소연을 시킨다면 개는 즘생이라하지만은 사람된 인사치고어쩌면‼인심‼이 그럴수 잇느냐고 하지나 안홀까

JODK
演藝放送中止
記念行事放送

사변일주년기렴 행사로전조선의 각방면이 총동원학에잇서서 방송국에서도 이날은 일체로연예방송을전부중지하고 기렴행사에 맛는순서를 진행하야 아침여덟시에는 조선신궁으로부터국위선양、황군무운장구 기원제실황을 중계방송한것을 비롯하야 동경으로부터 수상、육해상강연중계、저녁에 사변일주년기념담화등으로써 길경순서로 일관하엿다

處處서記念講演

선전일주년기렴일을당하야 이날을뜻잇게 · 마지하기위해서 나제는 국민정신 총동원조선연맹경성연맹의 결성식 무운장구기원제 전몰장사위령제등 각방면에 사가잇섯거니와 밤에는 또 성전의 원인과경과에 대한인식을 도랍게하야써 비상시에 처한국민으로서의 각오를 다시금한번 새롭게 하고저여러가지의 기렴강연회가 열엿섯는데 더욱이나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中央基靑)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의 후원하에 이날오후일곱시반부터 종로중앙기청 대강당에서 성전일주년 기렴강연회를 열엇다 회는 자못성황이여서 고원훈(高元勳)씨는『시국에대한국민의용의』라는 제목으로 한규복(韓圭復)씨는 파거일년과 금후의결심』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열변을토하야 청중의 시국인식에 기여한바컷섯다 이강연회외에도 부내각처에서 기렴강연회가잇게되여 동부는 용곡(龍谷)여학교에서 북부는 수송(壽松)소학교에서 그리고 영등포에서는 우신(又新)소학교에 서 강연회가잇섯는데 모두가성황이엿섯다 (사진은 수송소학교강연회광경)

甘蔗知事
在支最高指揮
官에 感謝電報

감자(甘蔗)경기도지사는 사변일주년을 마지하야 도민의대표로 현지의 사내(寺內) 전(畑)(及川) 최고 지휘관과 금천양 최고사령장관에게 다음과가튼 감사전보를 발하엿다

今日事變一周年을 迎함에當하야 貴部隊將兵의 御勵勞에對하야 衷心으로 感謝의 意를表하고 아울러 武運의 長久를祈함

中部版

金浦郡에害蟲發生

【金浦】 김포군에는 금년봄부터 갑충의 해충이 발생하야 나무입사귀는 모조리 갉어먹어서 왕요로 피해가 다소간되는 상태이든바 요지음와서는 다소간되는 형세이나 송충(松蟲)이 만이 발생하야 군내각처에 막대한 피해가 잇서다 그중에 임야한곳은 하성

五萬名의赤誠모아 京城聯盟發會式

記念할七日아침, 雨中의京城運動場에會合

朝鮮聯盟과同時에盛大擧行

지나사변일주년기념일을 당하야 총후국민의 정신총동원을 일층강화 확충하기위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비롯하야 전조선각부 군에 지방련맹이 되여 경성련맹도 칠일오전열시부터 조선련맹과함께 가랑비 뿌리는 경성운동장에서 오만여 선려명이 모히가운데 성대한 발회식전을 거행하엿다 이에 경성련맹의 리사장인 좌백(佐伯)부윤은 다음과같은 식사(式辭)를 말하엿다

佐伯京城府尹式辭

一言人事를 올립니다 支那事變勃發一周年에 相當하는 極히 意義기픈 今日 이에 南總督閣下 小磯軍司令官閣下를 비롯하야 多數貴紳賓臨下에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과함께 當京城聯盟의 發會式을 擧行함은 時局에 비초여 各位와함께 欣幸에 不堪하는바이다

回顧컨대 昨年의 今月今日 盧溝橋에서 支那의 不法한 一發銃聲이 日支의 風雲을 捲起한以來 戰戈드디여 支那四百餘州에 及하야 忠勇無雙한 皇軍은 櫛風沐雨幾多困苦缺乏에 堪耐하면서 滅私奉公一死殉國의 決意로써 或은北支에 或은南支에 또는中支에 勇躍奮戰奮闘 陸海空軍의 戰略이 適切하야 善戰連勝을 博하고 또干戈平定의 地는 新政權의 成立에依하야 安住樂土의 建設을企圖하야 良民에게 其所處를得하게함과가튼 我皇軍의 武勳은 燦然히 中外에빗나고 國威八紘에 洽한것은 我等帝國臣民의 衿持인同時에 感激의 새로움을 늣기는바이다 이는 勿論御稜威의 所致이나 또한 皇軍將士의 忠烈果敢한 戰闘의 賜物로써 國民은 一齊히 感謝不措하는바이다 然이나 기피 時局의 推移를 洞察하여보면 蔣介石의 引率한抗日武力의 潰滅은 今後世界列强의 微妙한動向과 기픈關連을가저서 正히世界大戰當初의 狀況에 彷彿한것이잇서 今後의狀勢는 卒然히 逆睹를不許한다 此間에處하야 我帝國은 支那事變의 解決과 所謂一觸卽發의 緊迫한國際情勢에 直面하야 東亞의安定世界平和의 確立에 邁進하지안으면 안되는 重大한 使命을 가지고잇다

帝國政府는 今年一月今次事變에 對하야 蔣政權을 相對로하지안는다는 重大한聲明을 發하야 帝國의所信을 中外에闡明하는 同時에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을 强調하야 새로히 國民의 覺悟를 促하고 朝鮮總督도 또한 半島二千三百萬民衆에게 對하야 事變의 由來原因을 밝히고 聖戰의 意義를 闡明하는同時에 長期抗戰을 覺悟하야 堅忍持久의 決意를 굿게하고 生業報國에 精進하야써 時局對處上遺憾업기를 告諭하엿다

爾來 半島民衆은 잘 諭告의 趣旨를 體得하야 時艱克服에 邁進하고 特히 京城府는 半島의 首都인 特異性에 鑑하야 施政方針의 實行에 直面하야 府民의 實行에 勇往하고 總後의 先驅가되여 今日에 及하얏다 아 이제 事變의 一周年을 期하야 今日에 及하야 皇軍의 偉勳을 追慕하는同時에 ... 하야 一般府民의 自覺을 促하야 ... 各自의 生業에 精勵하야 京城聯盟의 結成을 期하야 府民總動員運動의 第一步를 實行하고 ... 七十萬府民을 抱擁하는 本聯盟加入團體同人各位는 잘本聯盟結成의 趣旨를 諒解하야 縱橫 ...

富川郡의稻熱病

暴雨로多少減勢

卅町步無事、九十町步憂慮

【仁川】 부천군내의 일백이십여정보의 도작은 이앙(移秧)이순조로되어 풍작을 예기하여잇섯는바 의외에 도열병(稻熱病)이 발생을 바더 일반농가에서는 수미를 펴지못한다한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지난칠일부터 나리든폭우로말미아마 다소의해갈은 된모양이라고 군농회(郡農會)당국자의 말이 잇는데 그간여러가지 방법으로약삼십정보는 무사한십이나 나머지 구십여정보에대한것이 우려중이엿섯는데 부분은 소생되엿슴으로 작년농작에비하야 약칠할의 수확을보히리라고한다

新築工事中의 總督官邸中止

南總督의命令으로

비상시국을 극복하려고 군용품의 충족과복지의 공급뿐아니라 전시국민경제의 철저한강화에 힘쓰고잇는 총독부에서는 솔선하야 이를 실시하고 국책에 순응하야 금년도 실행 예산도 감축을 실시하고 잇는데 유일에열닌 국장회의(局長會議)에서 남총독은 몰여히 현재공사를하고잇는 총독부관신축공(官舍門)의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엄명하엿다 현재와섯대(倭城臺)관저는 일청전역(日清戰役)전에지은구식건물로서 비가더러새기도 하고 재목이 상하고(도잇서서 신관저의건축은 우원(宇垣)전총독시대부터 지려고한것으로 금년에비로소 어녕작정으로 사십만원을 드려기공하여서 벌써기초공사도 끗나고재료도 정돈되여관민이 모다하로바삐준공되기를기다리고 잇던것이다 이와가튼 총독의엄명에 놀래인 관계각국과장들이 이왕짓든것이니 완성하도록 하게하여달나고 하엿스나 남총독은 강경히반대하여 십년동안이나 계획하고잇던 총독관저도 이로써중지하기로되엿다

방(方町)에다가 일만칠천칠백팔십일평의 기지를매수하야 교사의신축을준비중이든바 이것을 산전덕치(山田德治)씨가 사십팔만삼천팔백원에 공사청부를바더 명년도까지에 건축을완성하기로되엿는데 교사는 제일교사삼층, 제이교사이층, 철근 「콩크리-트」와 연와병용조로서 총연평이백이십오만육백삼십일평 실습건물팔십팔만사천백삼십육평에달하

京城工業學校 起工式盛大

【永登浦】 경기도지사(甘蔗京畿道知事)가 인적자원의개발을위하야 특히금번에 설립하게된 경성공립공업학교는 공업지대영등포에인접지인 번대방정(番大

楊州郡長興面長更迭

【楊州】 양주군 장흥면장(楊州郡長興面長)최기준(崔基俊)씨는 이번에 용퇴하고 실업방면에 진출한다는바 씨는면장으로 오개년이상재직중 면에대한 공적이 만흔 ... 가정사정에의하야 ...

一月부터六月까지 一億八千六百餘萬圓

比前年同期三千六百萬圓增

事變以來仁川港의貿易躍進

【仁川】 사변발발이래 일년동안에 인천항의무역은 얼마나되나 인천세관(仁川稅關)조사과조사에 의하면 일월부터 유월말까지의 총액이 일억팔천육백구십유만구천여원으로서 전년동기와비교하면 일억사천오백유십팔만칠천여원에 비하야 삼천육백이십팔만일천여원의격증을 보이엿다 지난유월중의 무역의 수입(輸入)은 이백사십일만구천여원으로전년동기에 비하면백만원격증이며 수출(輸出)에 잇서서도 십칠만원의 증가이며수출(輸出)은 일백육십팔만오천여원 증가이다 이입(移入)은 일천육백오십일만팔천여원을 돌파하엿스므로 항도인천의 무역계의 약진상을 가히알수잇다

七十餘名華僑들도 永登浦神祠參拜

慰靈과武運長久祈願

【永登浦】 부내영등포방면에 거주하는화교친목회(華僑親睦會)에서는 기보한바와가티 칠일오전열한시부터 영등포신사(永登浦神祠)에서 지나사변일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얏는데 당일에는비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송상옥(宋常玉)씨이하회원 칠십여명이 참렬하야 엄숙한중에 전몰장병의위령제(慰靈祭)와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한후 다음과가튼결의를 하엿다

決議

우리들은 신정권의 방침에 쪼차 동양영원의 평화와 행복을위하야 끗까지 대일본국민과 협력하기를결의함

(사진은영등포신사에 참배하는화교들)

松井氏의美擧 貧民戶稅代納

【禮山】 눈이업스면 코를떼일세상에 호구는고사하고 그날그날을 지속치못하며 부담되는세금을 그기간내에 납부치못하고잇는데 충남예산군 고덕면 대천시(忠南禮山郡古德面大川市)에거주하는 양조가 송정구장(松井駒藏)씨는 동면내에 잇는 극빈자(極貧者)백여명의 호세(戶稅)일금오십구원을 대납하겟다고 동면면장 권병한씨에게 언명하는동시에 납부를 하엿다는데 이소식을 들은 일반면민의 칭송이 자자하다고 하는데 전기송정씨는 이거사가 금년에 처음이아니고 오륙년전부터 매년매기에행사가되여잇는일방 기타지방사회사업에도 다대한금액을희사하는 자선가라는바 일반은더욱씨의존경은물론 그거사에감사하고잇다고한다

地方現業職員 遞信事務講習

체신국에서는 지방현업간부직원에 대하야 사업운영상지도경력 일백삼십사번지 사는최모(崔某)의안해 조씨(趙氏)라는스물아홉먹은 여자는 이날오후일곱시반에 양재물을 만히먹고 서 생명이 위중하다한다 그는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할 목적으로 먹은모양인데 복잡한 딱한사정이 잇는모양이라한다

신의강조와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취지를 철저시키기위하야 총신관계사실구명 보험관계사실구명 합계구십오명의우수한 지방현업간부직원을 소집하야 오는팔일부터육일간 체신사업회관에서 매일오전여덜시부터 강습회를열게되엿다

양재물마신人妻 세상이뭅시실혀서

유입저녁 동대문경찰서에 드러온 보고를보면 부내종로통

家庭爭議고해出奔

시내길야정(吉野町)일정목삼십번지 철도국원김성조(金城兆)의

勤勞報國團

金浦郡에도結成

【金浦】 칠일 지나사변기념일을 마지하야 조선각지에서 일제히 기념행사를한다함은 본보에보도한바어니와 김포군에서는 지난 오일에 관내각면장, 공립학교장, 전부를 군청회의실에 집합케한 후 당일기념행사에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결과 학교와면이주최가되여 근로보국단을조직 하야 당일 ... 벌채를 ...

開城南部靑年團

勞役賃金을國防獻金

【開城】 개성남부청년단(南本町靑年團)일동은 제일선에서 악전고투하는 전선장병의 로고를 미성으로나마 위로하겟다는 충후적성의 발로로써 지난유일남부선(南北線)도로공사장에서 하로동안 더위와싸와가며 품을팔어가지고 여기에서어든 품삯을 전부 국방금으로 헌납하기로되엿다

戰沒者遺族에게 燈籠寄贈을計畫

경기도군사후원연맹에서는 판내에잇는 지나사변전몰장병의영을 위로하는의미에서 강조유족에게 등롱(燈籠)을기증하기로되여 이뜻을 부, 군, 읍 면연맹지부에 지시하엿다

陸軍病院患者專用 自動車二臺獻納

七日、朝鮮軍愛國部에

京畿道知事와三部長同行訪問

사변일주년기념일인 칠일오후 감자(甘蔗)지사는 내무 산업, 경찰각부장을 대동하고 조선군애국부에 나가서 군애국부에 로 건설중인 육군병원자동차의헌납하기로되엿다 경기도소속관서직원일동의헌금으로 자동차(가격일만삼천원)대를 헌납하엿다

홍정업는職業紹介所

六月中求人數二千三百七十名

求職數는千九百五十名에不過

경성부영직업소개소의 지난유월중 상황을보건대 구인(求人)수가 이천삼백칠십명이고 구직(求職)수는 일천구백오십명 이라는 소수로써 사람을 구하야도 어들수업는것이 륙백이십오명이나되여 휴업한 경기를 보이고잇다 이것을 전년동월에 비교하여보면 구인수는 오백십사명이 증가되여 잇슴에 반하야 구직자는 칠백팔십칠명이나 격감되여잇다 이구인중에는 가정고용인(雇傭人)이 일천사백삼십사명으로 제일다수이다

在仁新聞記者團으로 新聞報國團結成

各職業別로工場에서도

【仁川】 명칠(永井)인천부윤은지난오일 오전열시부터 부회의실에서 재인신문기자단을 초대하고 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조선연맹지부에 가입시키고 신문보국단(新聞報國團)을 결성하고 칠일오전 열시부터 인천신사에서 사변기념일을 복하야 결성식을 거행하엿다

勤勞報國團結成

인천부내에 근로보국단을 결성하려고 부내십여단체 대표자들을마치고 칠일사변기념일을 (勤勞報國團)단의 결성에대한협의회의실에 소집하야 근로보국지하여 결성식을 거행하엿스며 부내각관공서와공장에서도각각 결성되엿다

仁川商議役員會

【仁川】 인천상공회의소(仁川商工會議所)에서는 오는구일 오후한시부터 그회의소 회의실에서 역원회를 개최한다는바 토의할사항은 다음과 갓다

議事

一、朝鮮商工會議所總會議事報告의件

一、議員總會開會의件

一、仁川商工會議所議員表彰規程

一、其他

地方人事

▲朴鶴來氏(楊州郡長興面長)新任 人事次本社楊州支局來訪

스·파洗濯法講習

東京淸野女史를招聘

―愛婦京城分會의主催로―

애국부인회 경성분회에서는동경피복(被服)연구회의 청야(淸野)여사를 초빙해서 애국섬유(纖維)스테풀·파이버-에 관한 직물(織物)강습회를 개최하기로하엿는데 그일정은 다음과갓다

▲八、九兩日 自午前九時 至午後四時 於京城師範學校

▲十、十一兩日 自午前九時 至午後四時 於京城第二高等女學校

그러데 스·프재단법 세탁법가튼것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회원이외의 일반부인네에게도공개하리라한다

延專柔道部來仁 武道館에서試合

雨中에도觀衆二百名

【仁川】 仁川武道館 主催의 延專柔道部招聘柔道試合은 지난六日雨中에도 不拘하고 栗木町仁川武道館에서 午後八時부터 擧行된바 먼저 姜樂遠師範의 開會辭로 選手一同에게 對하야試合보다 心身鍛錬과 將次後輩養成에對한 總職과 模範的人物이 되라는 訓示가잇슨後 仁川體育會理事柳昌浩氏主審下에 幕은열렷다 兩軍의 白熱된技術은 道場設置以來 처음보는試合이라하며 延專主將 朴谷業君과 仁武主將崔景得兩君의 對戰은 그야말로 龍虎相搏의 格으로 一般觀衆의 視線을 總集中되여섯스며 當日은 퍼붓는비도不拘하고 모여든 觀衆은 무려二百餘名이엿다

◇延專軍 (○은勝 ×는負) ◇仁武軍

延專軍	仁武軍
×柳志玉	○崔明奎
○柳志玉	×鄭成和
×趙基行	○張仲植
○趙基行	×宋公三
×趙基行	○宋公三
×河文德	○金文紹
○閔內斗	×林鍾根
×閔內斗	○林鍾根
×朴東奎	○崔俊衛
×金淳奎	×崔俊衛
×金宙鎬	○崔俊衛
×白完鉉	×李任玉
○趙庚龍	×吳成玉
趙庚龍	○張永華
×五大根	×張永華
○朴谷業	主將×崔景得
主將○朴谷業	

붓드러간畜犬 新堂町에留置

八日까지主人을苦待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시내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지난오일과 유일의 이틀동안 거리로 도라다니는 야견(野犬)을 닥치는대로 붓잡어갓섯이 도합 마흔세마리나된다 그러데 붓잡어간게 는 곳 죽이지는 안코 팔일까지 그대로 신당정(新堂町)이백삼십이번지에잇는개공장(大工場)에다가 한데모아두기로 햇다는데 이기간까지에 임자가나타나면 개를돌려주기위해서 이라고한다 그래서 개를일허버린사람은 팔일까지 동대문경찰서위생계에와서 임의버린개의종류와 나이를말한후 신당정개공장에가서 차저가도록하되 만약기간까지에 찻지안는개는 그대로 처분하리라한다

金村一山間에서 列車에靑年轢傷

鐵道病院에入院·重態

육일오후오시오십칠분경에 개성(開城)발룡산(龍山)행열차가 금촌(金村)일산(一山)간을지날때에 남자한명이치엿는데 이사람은 고양군벽제면불광리(高陽郡碧蹄面佛光里)에사는김송현(金松鉉)(二二)으로 방금용산철도병원(鐵道病院)에입원치료중이나 중태라하며 부주의인지 자살하려던것인지 아직은 알수업다한다

少婦出家 姑婦不和로

【淸州】 청주군 랑성면추정리(浪城面楸亭里) 안모(安某)(二二)라는 사람은 청주읍영운정(永雲町)방모의딸 복순(卜順)(一七)이와 작년봄에 결혼하야 이래 시내석교정에서 동거하여오든중 수일전 전기여자는 시어머니와의사이가 조치안허 그이튼날 어데로인지 가버리고말엇다는대남편인 안모는 시내석교정파출소에 수사원을 제출하엿다고한다

第二回 全朝鮮씨름選士權大會

時日 七月九日、十日兩日午後七時半

場所 太平通 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觀覽料 一般 四十錢 學生 三十錢

出場勇士―玄明鎭(咸興) 羅允出(大邱) 朴容健(咸興) 李成株(新浦) 李祥鳳(京城) 嚴漢龍(京城) 金聲吳(安州) 金恒洛(洪原) 玄鎭修(黃州) 宋炳鎭(黃州) 許承和(鎭城) 朴春東(元山) 金南龍(新浦) 李亨培(載寧) 外二十八力士가登場

主催 朝鮮씨름協會　後援 朝鮮日報社

여자는자궁만 완전하면일생을 편하게지낼수잇습니다

애기를배지못하고、대하증이흘으고、월경이불순하고、수족냉증、두통현기、자궁출혈이심한것은자궁에고장이생긴탓입니다

자궁병에제일 효력잇는치료법

부인들의병을조사해보면 그원인은대개자궁에고장이생겨서 그병이다른데까지 전신적으로해롭게하는것이니 여자는자궁만완전하면 일생을편하게지낼수잇고 귀여운아드님따님도낫을수잇고 이만큼여자의 자궁은귀중한작용을하는것이지만 한번자궁에고장이생기면 그병이원인이되여 다른병까지생기게되는수가 잇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궁에생긴고장은표면으로드러나는병이아니므로다른사람이보기에는 조금도알수업는때가만코 본인도처음에는질를르고 무심히여이고잇는수가만습니다 즉 처음에는 월경이불순해서서 매월일정한시일에 업고한답식두달식걸르거나 또는한달에 두번식하는수도잇고 월경때는몹시압퍼서고통을하시거나 월경시작하기三、四일전에 아래배가몹시아프거나 월경색도곱지안코 분량이너무만커나적거나한것은자궁병의시초이고 이증세가즐더중하게되면 대하증이흘르거나 자궁출혈하거나 수족이냉하고 얼골도전만못해지고 음식맛을모르게되는것이보통입니다

여러분가운데 만일이러한병이잇다하면잠시라도그대로 내버려둘수업는문제이니 이것을완전히곳치실라면 시일을두고서라도 래도지금입분에서 신용잇고효력이유명한약 『명지모』와 『오기나구』를 주문하야쓰고근치하시기바랍니다 부인병약『명지모』의 약효는 전부터신문에서 여러번보고신용잇다는것을잘알으실줄 밋습니다만 이약을 복용하신즉 대하증이차차줄고 월경의고통도 덜해서 아래배가땡기고아프든것과 두통이날마다나서가고 수족냉증도낫고전신이 따뜻해집니다 이약은 고쳐신이 따뜻해집니다 이약은 다르약과 파달러서 먹기에편리하게 되여잇스므로 남들에 살림을하면서도복용할수잇고 약효가조와서 만흔부인들에게 조흔평판을 밧고잇습니다

이와갓치 누구를물론하고 엇던부인에게든지 신용을 밧는것과 칭찬을밧는것으로도 약효를증은

問

저는 부인병으로하야참 말로이것저것 여러가지 약을써보앗습니다 그러나조금도 약효를보지못하고 병원에도가보앗스나 별수업섯습니다 항상간만 적적하고냉새나는 대하증이흐르는것을남에게 말할수도업스며 지금까지 고통을참고지냇습니다 인제는 나이도二十五세나 되고 결혼한지도 四五년이되는데 병으로하야그러지 아직까지 애기를배지못해서 남편에게도미

참말로걱정중

몸도약해지고 애기도못나니

짝이업습니다 그러고 월경불순대하증 두통현기는 멀미가 날지 경이고 본래에 몸도약한편이지 만 적적하야 지금은 각금잘 때에 땀을만히 흘립니다 하로 밧비 이모든병을 근치하고 튼 튼한몸이되여 귀여운애기도나코 십흔데 동무의말을드른즉 부인 병에는 명지모와 오기나구가조 타니 참말인지오? (一病者)

答

당신의병세를보오니 파 연저정되심을밋습니다. 그러나 당신과가튼병세는 당신 뿐만아니라 세상에는 그와가튼 병으로 고통하시는부인이 한두 사람이아닙니다 이와가티 부인 병에걸린분은 적당한치료법을택 하야 조섭을주의하시면 의외 에속히회복하는수가만습니다 부인병을 모르는원인은 첫 재로 너무나병을무심히여이고치 료를게을리하는것과 둘재로는 그 와반대로 너무조급한마음으로한 가지약을 꾸준히계속하야쓰지못 하고 이것저것여러가지약을 쓰 다말다하거나 병원에도가다말다 하는까닭이니 여러분은 이와가 튼 폐단이업도록 약을꼭신용하 고 쓰시기바랍니다

히집작하실줄밋습니다 근래에는 여러가지외용약이만히 생겻지만 외용약한가지만으로는 아무리하야도 완전히곳칠수업스니 반드시 내복약을쓰면서외용 치료법인줄밋습니다

부인병은 여러가지원인이잇스므로 이것을단순히여이고 외용약한가지만으로 국부에만치료를해서는안되고 역시병근이전신에 퍼저잇는이만큼 전신적으로약효가잇는 내복약을써속으로키피 과잡복된 병독을빼내고근치할수 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내복 약명지모와외용약오기나구를쓰시면 저의효과가조흘줄밋습니다

약을쓰시기바랍니다 그러까닭으로 여기에말삼하는 내복약명지모를쓰면서 외용약오기나구를쓰 시는것이 제일리상적이고적당한 치료법인줄밋습니다

쓰고조섭을하면 근치할수잇습니다

지금속히약을

약을주문하야 쓰고자할때에

이약을 주문하야쓰고자하는분은 조금도주저마시고 하로밧비여러분의병세를속히얼업시 자세히적어서본포로보내시면 병세에꼭맛는약을대금인환으로보내드리오며또 한약 을선금으로주문하시는분에게는 송료를전부 부담해드리오니 여러분께서편리한방법으로약을주문하야쓰시기바랍니다

婦人良藥 命之母

主效 月經不順 子宮出血 白帶下症 下腹腰痛 頭痛眩氣 手足冷症 產前產後

藥價	
命之母	오기나구
七日分 一圓三十錢	八日分 一圓
十五日分 二圓五十錢	二十日分 二圓二十錢
三十日分 五圓	五十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二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長篇小說

薄命 (43)

韓龍雲 作 鄭玄雄 畫

誘惑 【四十三】

『아 그래도 말을 아니해 아가리다 찟지를 물녓너냐 웨 말을 아니해 어년아』

송씨는 순영이 귀때기를 번개가치 때리고 다시 주먹을 든다

『에구 잘못햇서요 배우겟어요』

순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한손으로는 송씨의 주먹을 막고 한손으로는 눈물을 씻는다

『아 이년이 넘손을 막어 네가 어느새부터 맛장구를 칠라구 하는구나 죽더라도 다수굿히 안저서 당할일이지』

송씨의 주먹은 어느새 순영이 어깨쭉지를 때린다 순영이는 송씨의 주먹을 막으라든 손을 얼른 오구리고 아푸다는말도 못하고 느끼는 소리도 참으면서 운다

『에그 어머니 참으서요 배우겟다는데 무얼 그러서요 고만 참으서요』

하는 운옥이는 송씨를 부둔러서 진정시키라고 한다

『아 이년보게 가제는 게편이라고 잘못하는년을 보고서는 아무말도 아니하고 분통이 터저서 죽겟는 나를보고서 참어란』

송씨는 식식거리면서 운옥이를 보더니

『이년아 너도한번 마저보아라맛이 어떤가』

하고 때리랴고 하는것을 운옥이는 빨리 피하야서 구석으로 간다 그것을 보는 순영이는 너무도 무서워서 울지도 못한다 그러나 새로히 웃이상할까 하야서 몸을 조심스럽게 갓는다 방안은 잠시 조용하얏다 송씨는 한풀이 죽은드시 물러안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뉘탓 뉘탓 할것잇니 다 내탓이지 내가 인복이 업서서 그러치 배우기 실커던 고만두어라 남의 자식을 억지로 가르칠수도 업는일이오 또 배우기 시려하는것을 억지로 가르치면 무얼하니 네가 실커던 지금이라도 내집에 잇지말고 나가거라 나가기는 나가지만 내가 너를 거저 보낼수는 업다 내가 너를 다려오기에 부비가 백여원이나 드럿다 대강대강 처보아두 예서 사람이 들이나 나려갓지 게가서 며칠 묵새겻지 또세사람이 차비드려서 올라왓지 또 원산서 묵이지 묵인지빠저서 이틀이나 치료 하너라고 돈드럿지 하니까 대강치도 돈이 백여원이야 그것은 네가 해노코 나가야한다 그려고 위선 그옷을 벗어노아라 그러고 입고온 옷을 도루 입어라 그러고 당장이리도 돈을 해노코 나가거라 너 살라는것을 내가 억지로 가리칠 묘리두 업고 또 내가 무에라구 내가거저두고 먹이구 입히구 하겟니 하니까 어서어서 네집에 기별을 하던지 어떠케하던지 백여원을 부러노코 나가거라 그러고 위선 그옷을 버서라』

송씨는 그대지 끝은내지 아니하엿스나 평탄치 아니한 눈으로 순영이 눈치를 본다 순영이는 무에라고 대답을해야 조흘는지 알수가 업섯다 돈백여원을 무러놋는것은 자기의힘으로 문제도 아니되는것인즉 격정할만한 일도 아니나 평상에 처음으로 어더입고 자기의 몸보다도 더 애끼는 비단옷을버서노라는것은 천하에 제일 괴로운 일이엇다

『내일 부터라도 소리를 배우겟서요 그리고 무에던지 하라는대로 하겟서요 잘못햇스니 살려주서요』

순영이는 실경으로 애원하엿다

『네가 다급하니까 배운다고하지 또 간이삭으면 배우기실흐니 조호니 하것지』

『아니야요 잘 배울테요』

『정말 잘배워?』

『예』

『정말이냐?』

『예 잘 배우겟어요』

『더 그럼 다시 배우네 안배우네 하는소리를 하면 그때는 부비든든 백여원을 꼽장이를 밧고 옷도 발가벗겨서 그대로 내좃는다』

『다시 그러면 죽어도 한가를 못하겟서요』

『정녕 그러치?』

『녜』

『너 운옥이도 지금 순영이하는말을 드럿지?』

『드럿서요』

『세상 일이라는것은 알수가 업서 징거를 세워두어야지』

송씨는 자기의 수단이 능히 성공할것을 예기한지라 가소롭게 우서버렷다

스탈린映畫

작년 자베트에서는 영화로 『차ー에서레닌으로』라는 선전영화를 백혓스는데 그영화에서는 토로스키만 활약하고 스타린은 단한번『레닌』과함께 화면에나와기때문에 감독『막스·이ー스트만』은 토로스키스트로 몰려가지고 체포를당햇다

그래서 금년은 이명예를 회복하라고『암키노』에서『十月의레닌』을 제작하는데 얼마전아메리카에서 공개되엿다

이번에는 스탈린이 나오는데 어떠케 핑장히 나오는지 전화면이 순전한 스탈린崇拜영화로서 화면에는 지노비에프 카메네프등 거두가 잇는속에서 레닌이『스탈린이 제일이다』하고 절규하는 장면이잇다

『레닌』으로 분장한 배우는 『시츄ー킨』이라는 명우로 매우 평판이조흐나『스탈린』에는 무명배우가 분장햇는데 이왕자의 위엄을 표현하려고 애썻스나 결국은 신통치 못햇다고한다

婦人時間

作品에나타난 女性群像

(八日前一一時一五分) 朝鮮日報 咸大勳

여러작품을 보며는 반다시거기에는 여주인공을 비롯하야 여러여성들이 등장한것을 볼수잇습니다 그녀성들은 제각금틀림한 성격을 가지고 나타나서인생을 전개시키고 잇는것을 봅니다 여러가지로 흥미를 끄는 여성이만습니다마는 오늘은제정(帝政)로서아가 나아은위대한작가『톨스토이』의『카츄ー샤』(復活)에 나타난 여주인공ー순결한 처녀로서 상전의 집도련님의 사랑의 불작난에 대상이되여 타락하야 시베리아로유형이 되여가는『카츄ー샤』의이야기와 또한사람 그는 유락(淪落)의 세게에서 참된사랑을 차즈려하엿던『말그리ー트』ー불란서의 문호『듀ー마』의 원작 춘희(椿姬)의 여주인공ーー이야기를 하야보겟습니다

오디라 JODK

어린이時間

(八日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즐거운遠足』 作曲指導 金相德 두루미會

두루미회회원인 어린동무들의 극입니다 학교에서 내일은 인천으로 원족을가게되여서 기뻐하는 그전날밤부터 떠나는아침까지에모양을 극으로하는것입니다 처음부터끗까지를 세도막으로나누어서 첫째…내일은 인천으로원족을간다는 선생님의말슴을듯고 기뻐하는복희(福姬)형제들의조와하는모양 둘째…그전날밤과자도사고실과도사고 벤도반찬도준비가되여서 즐거워하는모양 셋째…드듸어원족을 떠나는 아침의모양

이러케세갈래로 나누어서 들려드리게되엿습니다 자세히들어보세요 아마그속에는 여러분도 게신것가틀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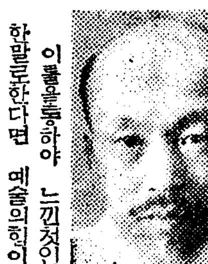
音樂名畫의던진巨彈 "동·키호레"는살엇다

甘美한왈츠에陶醉된感興이 "산쵸오"와더부러우름을운다

지난 五、六양일간 본사주최로 부민관(府民館)에서 개최된 음악명화감상회(音樂名畵鑑賞會)는 절대의인기로써 대성황리에 마을나리엿다 때마침 공습관제(空襲管制)하에 긴장되엿던 민중이 五日이비상경계가 해제되자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광명의세계에 해방된듯 다시보기어려운 이명화를차자 정각전부터 모혀들엇다이제여기 이모저모의풋경과 각방면인사의 소감편편을엮거로하자

또한가지는 정담게예술과 사상으로매저진 안호상 모윤숙(安浩相毛允淑)부부와 이태준 이순옥(李泰俊李順玉)내외의양자가 보이는것도 이감상회의 이채일것이요 동덕고녀(同德高女)에서 비가쏘다지는 둘째날 시험때의 바쁨도 무릅쓰고 음악선생 정순철(鄭淳哲)씨와 이형우(李亨雨)정갑(鄭甲)외여러선생이 오신것도 매우반가운 일이엿다 평양의 백철(白鐵)씨가 이감상회때문에 평양으로 급히 가야할일을 하루연기하는정성도 짐작할만하다

(사진은 洪碧初氏 李泰俊氏 白鐵氏)



이를통하야 느낀것인상을 한말로한다면 예술의힘이란얼마나 위대한것이며 위대한예술일수록 인류에게 더강한친화력(親和力)을 줄수잇다는것이다 이번 이영화 감상회는 어찌보면 영화라는 한정된 세계보다도 영화가 표현한 순수한 영화의 경지이외의 더큰 문학적 음악적ーー예술적인 거룩한생명을 우리에게 느껴줄수 잇기때문이다

는 이이유가이영화 감상미를 더 의의깁게한것갓다 그런길내 좀체로외출안하시는 조선문단의 선구이신 벽초홍명희(碧初洪命憙) 선생도 시간을 노치지아니하고 정각전에 와시고오서고 이화전문(梨花專門)에서는요새 근로봉사(勤勞奉仕)로 모두다 피로햇슴에도불구하고 전학교선생 학생 백여명이단체로 구경와던것이다 눈에제일만히뜨이는 학생중에는 연전(延專)세전(世專)

불전(佛專) 법전(法專)의전문학생과 힌데틀른 대예(大豫)학생이 그중만혓섯다 중학교는 마침 학기시험인 관계가 잇기는 하면서도 참다운 문화과 영화를사랑하는 사오학년학생들의 씩씩한얼굴들이보이는것은 매우반가웟다 그리고

至極한感銘에싸힌興奮은 다시새機會를차저

―各界人士의感激片片―

그리고 이명화감상회를 보신이중에서 감격된인사 면면의 자발적감상의 편편을모하보자

金尚鎔氏ー시인이요 겸하야 이전문과 과장으로게신씨는이영화회가 세상에알려지기가급하게 여러해를두고 두고기달렷든듯 감격하야 "참 내가 솔선하다시피해서 이번학생애들을 단체로구경가도록 햇습니다 영화도위대한 예술이라면 위대한산교훈과감격을 줄수잇는데잇슬줄압니다"등·키호ー테"는내일생에가장 감격된 훌륭한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로도 이런 조흔회합을 가지는게퍽조켓서요"

金載勳氏ー경성음악전문학원(京城音樂專門學院)을 경영하시는 음악가인씨는 매우만족한웃음을 먹우며 "처음으로 동·키호테를 영화에서밧습니다 물론『샬라ー핀』의예술은 음악한도로서 노괴평가합니다 아무조록 자주이

런훌륭한 예술적 회합을 가지도록노력해수십시요…아주감격햇습니다

安碩柱氏ー열성적인 씨는 상기된 얼굴에 그윽성까지도 다소떨리는듯 『참 조하요『동·키호테』를五년전 처음볼때보다도 이번이더 감격되는데요 다시보니까무어라고 말할수업는 흥분과

가슴에 넘치는 감명이잇습니다 참 최고의 예술적표현과 생명을 가진것이『동·키호테』라구 하겟서요』

安浩相氏、毛允淑女士 두분은 나란히안저서 이영화에서 어든감명을 서로후스면서 이야기하신다

安 『동·키호테』는 물론 문예작품으로 위대하니까 감명이

큼니다마는 영화로 보기에는 현대감정을 담은『원나의황혼』이 더나허벱니다』

毛 나는 의상으로나 분위기로나 오히려『동·키호테』의그 비장한장경이 더조하요

두분의이야기는 다시『아돌프·월브류크』의 연기에 대해서 논하신다

金晟鎭氏ー조선에서도최고로가는 영화팬인씨는 좀창백하신 얼굴에 다소 긴장된 흥분을 감추어가지고 겸손하게

『자주 이런회합을 가지도록 해수십시요 적어도 한달에한번씩 해수셧스면 구경하는사람으로는 여간 조흔기회가아니겟서요 아주감격햇습니다』

○

어넛밤 관중의 그어느얼굴에나 긴장되고 흥분되고 감명되비치 업는이가업섯다 서로처다보는 얼굴에는 비상한 표효롭마든 강이 잇섯다 "산쵸"가 마지막 말의얼굴을 쓰다드며 우는장면에서 울음어 난다는이 "동·키호ー테"가 운명한후에 흘러나오는 비통한노래에 전신에 소름이끼치는 감격을 햇다는이……악수로 퍼붓는비에도 밀려나오는 군중에도 여페와 이야기하는데도 전연 무감각한채 지극한 감명속에 외로운듯 초연히 서잇는 무서워보이는한얼굴 돌과가티 구더진그표정 이분이 "쌀라ー핀"의 음악과 "베ー토벤"의 언간에 지극히 감격되고 숭모하는 정순철(鄭淳哲)씨이것은 아마 잘 어보여자 그러면게는 못햇스리라

아모크의椰子숲속에 "샹탈"의香氣만놉하

여름의 感魅

安夕影

지금은 三伏철이다 비가오고개이고 하는동안에 이濕帶의한녀름도간다 三伏도아니건만 요사이에무더운 더위에 뼈까지 삶어지는듯한 熱風이 어디서인지부려온다 그리다가 비가 오면 시원한바람이 부러올것가터도 돌에 잇는花草만 生氣를 뿜내일뿐 내가슴속의 熱風은불며갈것갓지도아라

나는여기서『자바』와 가튼 熱帶에는 人間들을 미치게하는『아모크』라는 惡魔的인 病이잇슴이 생각된다 또한『홀크』라던지 사나이를 멀고먼本國에보내고 잇는 그女子의 이『아모크』的 病狀에서 傾倒하는 그畵影이 생각난다

○……○

赤道直下의 그무서운 太陽의炎熱과 濕氣를 품은 大氣 이러한 熱帶의 그늘이 지든에서 椰林속에서 더위와 洪水와싸우며 사라가는人間들 더구나 溫帶에서 한 사나이는 失戀하야 逃避의 길을『자바』로 잡어든醫師 또한女子는 本國으로자조가야 하는 外交官(?)의안해인女子 그사나이는 아직도血液이식지안흔사나이요그女子는所生도잇것만 아직도 그가슴속에情熱이끌는女子다

○……○

또한 그들은 人間以上 머리가 히기前에는 그들의 하ー트(心臟)의 불르짓는소리가 업을수업다 더구나 熱帶植物들의 異樣의 香臭와 熱帶土種들의 肉體의律動과『멜란코리』하면서도 奇怪한 音樂ー 그멜로디ー 그騷音ー그뿐아니라 激烈한精神的錯覺을 이르갈곳한무서운熱風이 휘몰고잇스면서도 間或天上에서 오는가하면『椰子樹』그늘을 지나오는颱風 또는비오는밤에 집바게 펄펄펄흘러가는 물소리그뿐이라 무서운雨雷소리 이모든深淵속에서 지나는 동안 炎熱과 倦怠와 그리고 무서운情慾과 또한情慾이 지나쳐면 恐怖와 戰慄

○……○

ー이래서 그들은 한번씩은『아모크』라는 惡疾에 걸리게된다 여기에걸리면 그들은 野獸가되거나 그럿치안흐면 남의피를 보고 죽거나미치거나하는 怪異한 선동을 造物主가 이『짜바』에 보냇다

『홀크』는 失戀의 深淵속에서도 이『아모크』에 걸린사람들을 救하라고 애쓰면서또 그도 이『아모크』의 症勢를가지고 잇섯다 그런中에도 그는 술과 賭博과 그리고 젊은 土人女子로더부러 우울한 날을 보냇다

○……○

어느날 또한 그무서운 精神的『아모크』에걸린 白人의 어엽븐女子가 이狂熱을 가진 醫師를 차저왓다 그女子는『홀크』가 初面인데도 自己男便에게는 도무지 알리지못할秘密事ー말하자면 그女子는 自己의 肉體上의 變化를 告白하고 그醫師에게 哀願하엿다『홀크』는 이女子의 秘密을 隱蔽하기 위해서 그는 決斷狂熱한 行動을하엿다

어느날 이짜바의 椰子樹드리운 海邊에 그女子의 屍體를 담은 棺槨이 바다에流葬이된다 또한 이棺槨과함께『홀크』도 자최를 永遠히감초운다 이『짜바』만잇슬수잇는『아모크』에犧牲된 두사람이다 그러나 두사람의靈魂은 어디서인지 즐거웁게살것이다

○……○

眞君 이映畵와가티『짜바』에『아모크』란病이 그러무서운病이아니고 다만情熱의病이라든지 그곳에 이映畵의主役인『마르셀샹탈』가튼 내마음에 맛는 女人이잇다면 나는『짜바』로 가라고한다 이女人의노픈香氣를생각하면 나는 지금熱風을 막지안호라고 부채든손을 멈춘다

(寫眞 醫師(홀크)로 나오는요일과(圓)은 마르셀·샹탈)

放送 JODK 랑그로프

八日(金曜)

◇午前六時 (東)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婦人時間『作品에나타난女性群像』 朝鮮日報 咸大勳
◇正午 (東) 時報 新民謠 (레코ー드)
◇午後〇三〇分 뉴ー스
◇同一時 傷病將兵慰問午後 (國語)ー龍山陸軍病院으로부터中繼ー 一、人事…東小門小學校四年生 高橋武 陸軍小學校四年生李春男 二、唱歌와遊戲…康子記念京城幼稚園園兒 三、詩吟(劍舞付)…木村欽水 四、物眞似 金永昌 五、新民謠…鄭明月 六、端唄 七、歌謠曲…李玉蘭 八、管絃樂…DK管絃團
◇同四時 뉴ー쓰 職業紹介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 (國語)ー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ー『第十二回都市對抗野球朝鮮第二豫選』ー
◇同六時三〇分 兒童劇『즐거운遠足』 作曲指揮 金相德 두루미會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趣味講演『舞臺이야기』 申甕均
◇同七時三〇分 뉴ー쓰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八時(東) 獨唱과管絃樂
◇同八時三十分 一、새打鈴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趙錦玉 趙蘭玉
◇同九時 經濟解說 東亞日報 高永煥
◇同九時二十分 라디오常識『라디오가엇재들리나』 韓德奉
◇同九時三〇分 (東)時報 뉴ー스 뉴ー스解說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九時五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三〇)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三八)
◇正午 (釜) 琵琶
◇午後二時 라디오學藝大會
◇同六時 라디오見學(哈爾賓)
◇同六時一五分 (城)講演
◇同六時二五分 (東)同
◇同七時三〇分 (城)라디오常識
◇同七時四〇分 (自上海)
◇同八時 (東)獨唱과管絃樂
◇同八時三〇分 (東)俚謠
◇同八時四〇分 (東)漫談
◇同九時 (東)時事解說

九日(土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家庭時間『어린이에게 조흔習慣을 지어줍시다』 東亞日報 朴承浩
◇正午 (東)時報 (東)土曜코ー서ー트(第廿九回) 東京放送管絃樂團
◇午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 野球試合實況(國語)ー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ー『第十二回都市對抗野球朝鮮第二次豫選』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童謠와合唱
一、童謠齊唱 京保童謠會 1、작난감비행기 2、손풍잡고 3、바닷동모 4、원족 5、물장난 6、배젓기 7、동물원 8、며아리
二、合唱 京保合唱隊 1、도적쥐 2、粉雪の曉 3、愛國行進曲 京城保育學校生徒
合唱指揮 李興烈 伴奏 DK管絃樂團 編曲과指揮 洪蘭坡
◇同七時 趣味講演 舞台이야기 (二) 申甕均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八時 大衆講座 裁判所이야기 京城覆審法院判事 金準枰
◇同八時三〇分 社會見學(第八回) 朝鮮製氷會社로부터中繼 見學者 李白姬 解說者 金鍾甲
◇同八時五〇分 一、執杖歌 二、遊山歌 三、船遊歌 李飛鳳 張彩鳳
◇同九時一〇分 管絃樂 一、古代風메뉴엣트 카르카노作曲 二、모ー리스의춤 노ー블作曲 三、小夜曲 카야ー니作曲 四、파스피에 들리ー브作曲 指揮 洪蘭坡 DK管絃樂
◇同九時三〇分 (時) 時報 뉴ー스 뉴ー스解說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九時五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一七)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 (三九)
◇正午 (東) 土曜코ー서ー트
◇午後六時 (大) 國史劇
◇同六時二五分 (富) 講演
◇同七時三〇分 (大)歌謠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長谷川如是閑
◇同八時 (大) 甲斐美和子
◇同八時三〇分 (大) 民謠
◇同八時五〇分 漫才

黑軍一三九의過誤로 累卵의危機에빠저

三玄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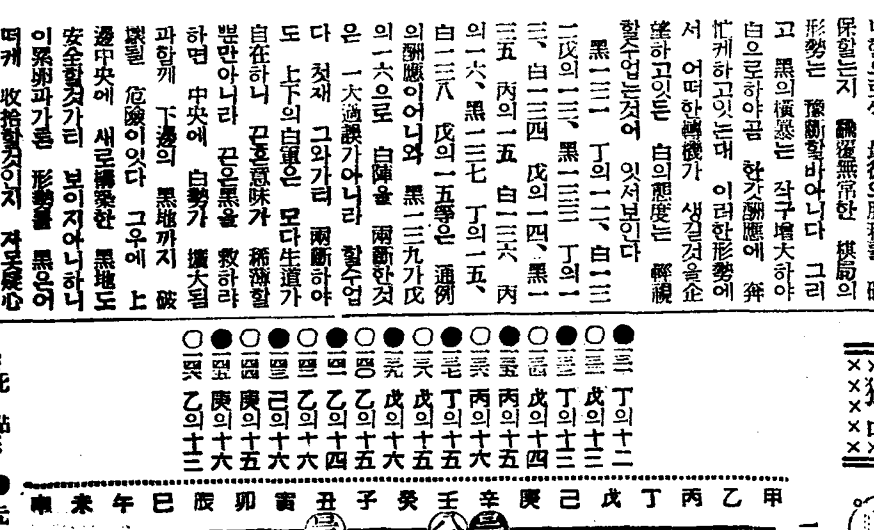
局勢는 벌서 中盤에이르러 七十二手의 過誤로 말미암아 이제 白의頹勢는 形言할수업게되얏다 그럼으로 아모리黑이大過만업스면 白의大敗는거이確定되고잇는데 果然 黑은 自重勤慎하야 大過를 犯치아니함으로써 最後의勝利를 確保할는지 飜覆無常한 棋局의 形勢는 豫斷할바아니다 그러고 黑의橫暴는 작구增大하야 白으로하야곰 한갓酬應에 奔忙케하고잇는대 이러한形勢에서 어떠한轉機가 생길것을企望하고잇든 白의態度는 冷靜할수업는것이어 잇서보인다

黑一三一 丁의一二、白一三二 戊의一三、黑一三三 丁의一三、白一三四 戊의一四、黑一三五 丙의一五 白一三六 丙의一六、黑一三七 丁의一五、白一三八 戊의一五等은 通例의酬應이어니와 黑一三九가戊의一六으로 白陣을 兩斷한것은 一大過誤가아니라 할수업다 첫재 그와가티 兩斷하야도 上下의白軍은 모다生道가 自在하니 긴요한意味가 稀薄할뿐만아니라 긴요한黑을救하라하면 中央에 白勢가 擴大될과함께 下邊의 黑地까지 破壞될 危險이잇다 그우에 上邊中央에 새로構築한 黑地도 安全할것가티 보이지아니하니 이累卵과가튼 形勢를 黑은어떠케 收拾할것이지 자못疑心이 어지안타 그리고 黑一三九를 乙의一六으로 자처 白乙의一七 黑乙의一五의 酬應을 行할것가트면 二十戶에자까운 上邊中央의 黑地는 絕對安全할것이오 또 白은 戊의一六의 끈킴』자리를 그대로 돌수업서 庚의一七 或은 一六에 下手치 아니할수업스니 그러다음 黑은 다시 先手를 活用하야 癸의一六의要地를 占하얏스면 저의優勢는 一層 擴大하얏슬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치못하야 白一四〇 乙의一五、黑一四一 乙의一四、白一四二 乙의一六의 酬應이 進行되니 上邊中央의 黑軍도 살지못하얏는데이제이 大馬를 도라보지안코 戊의一六이 끄는黑一點을 救하과가든 冒險을 敢行하얏다 그리하야 黑一四三 己의一六、白一四四 庚의一五、黑一四五 庚의一六의酬應이 進行됨과함께 白은 右邊中央의 黑陣中으로 侵入할手順이 保障되얏거니와 果然 白一四六 乙의一三이 이大馬에 適中하니 이것이 이大馬의 死刑宣告狀이 되지아니하면 幸이리라

國手爭霸譜 (8)

×本社獨占×

白 權秉郁
黑 丁奎春
(四目半込出)



●一三一 丁의十二　○一三二 戊의十三　●一三三 丁의十三　○一三四 戊의十四　●一三五 丙의十五　○一三六 丙의十六　●一三七 丁의十五　○一三八 戊의十五　●一三九 戊의十六　○一四〇 乙의十五　●一四一 乙의十四　○一四二 乙의十六　●一四三 己의十六　○一四四 庚의十五　●一四五 庚의十六　○一四六 乙의十三

死點…… ●[illegible] 寅의四　○[illegible] 壬의九　●[illegible] 丁의七　○[illegible] 辛의二
劫…… ●[illegible] 壬의二
粘…… ○[illegible] 寅의四　●[illegible] 壬의九

위장을 튼튼히하는……

어느분을물론하고 오래살기를바라며 無病하게 건강한生活을보내시기를바라나 그건강을 해롭게하는 원인이 잇는것을 아십니가

그것은 우리들께 가장귀중한食物인 쌀밥에는 사람몸에 꼭必要한榮養素「비타민비ー複合體」가 缺乏되어잇는때문에 病에걸니게되고 더욱목숨도 짧으게되고 잇는바입니다

그런므로 무엇보다도 그귀중한榮養素를 보충식혀야됨니다 그것에는 自然物中 제일많은「비타민비ー複合體」를 含有한진국인 麥酒酵母劑『에비오스錠』을 복용하시면 그榮養素의 不足으로 생기는 食慾減退 消化不良 便秘등이 모도낫게되고 먹은음식물이 榮養化되야 피와살로가게되야長壽케만들어줌니다

무엇보다도 먼저胃腸이튼튼하여야만 健康하시게 一平生을보내실수잇으니 病弱者는勿論이요 健康하신분도더욱 건강하시도록本劑를복용하여주십시요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全道藥房에잇음니다

純國産 酵母劑 エビオス錠
에 비 오 스 정

馬越藥學博士創製 橋谷農學博士監製

エビス・アサヒ・サツポロ・ユニオン麥酒醸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97-5-8)